“새 봄, 서울 도심을 달린다”…2023서울마라톤 19일 스타트

엘리트·마스터스 등 3만 여명 참가
4년 만에 정상 개최…즐길거리 풍성

SEOUL 2023 MARATHON

“새 봄, 향긋한 봄 향기를 맡으며 서울 도심을 달린다.”

플래티넘 명문마라톤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 19일(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42.195km 풀코스에서 화려한 레이스를 펼친다.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엘리트와 마스터스가 모두 참가하는 오프라인 대회로 열린다. 세계육상연맹 인증 플래티넘 라벨과 세계육상문화유산으로 격상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대회다.

엘리트 대회에는 해외 엘리트 30명과 국내 엘리트 71명 등 101명이 출전한다. 마스터스 부문은 40개국 3만1500명이 참가한다.

●100년에 걸친 역사 속엔 스토리가 있다

1931년 ‘제1회 마라손경주대회’로 시작한 이번 대회는 1964년 제34회 대회부터 ‘동아마라톤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풀코스를 시작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1979년 제50회 대회부터는 여성 마라토너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고, 1994년 제65회 대회부터 국제대회 성격을 갖추게 됐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가 열리는 해에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해 명실공히 최고 권위의 마라톤대회로 자리를 굳건히 했다.

꾸준한 성장 덕에 이 대회는 2009년 국제육상연맹(현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최고 수준 대회인 골드라벨 대회로 인증 받았고, 2019년에는 풀코스 기준 아시아 최초 WA 공인 세계육상문화유산에 선정됐다. 이듬해엔 골드라벨을 넘어 신설된 최고 수준 대회인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돼 도쿄대회, 보스턴대회, 베를린대회 등 세계 최고 대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 19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42.195km 풀코스에서 펼쳐진다. 15일 입국한 대회 엘리트 부문 참가선수들. 인천국제공항 |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silverstone@donga.com

주최 : 서울특별시 KAAF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주관 : SAAF 서울특별시육상연맹 spo-ex.com 스포엑스닷컴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체육회 협찬 : KB금융그룹 samyang ROGAINE AMINO VITAL GC녹십자 협력 : LAIZY lab NOTSEE BACK 낫씨백 GARMIN. 100% SHOKZ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대표팀도 매년 뭉쳤으면” 야구천재 이정후의 각성

**“日 투수들 공, 처음보는 구질
실력부족 인정, 배울건 배워야
일본은 매년 대표팀 소집 훈련
우리도 대표팀이 더 익숙해져야”**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5)가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일정을 마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팀 훈련에 합류했다.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시범경기를 앞두고 팀에 복귀해 가벼운 몸 풀기로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경기 출전과 훈련 모두를 빨리 하고 싶어 오늘부터 합류했다. 경기에는 16일부터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후는 이번 대표팀에서 커다란 좌절을 맛봤다. 자신은 10일 대회 1라운드(B조) 일본과 2차전에서 멀티히트를 작성하는 등 매경기 맹활약했지만, 대표팀은 2승2패로 조 3위에 머물러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대표팀과 한국야구는 2020도쿄올림픽 노메달에 이어 또 한번 참사를 겪으면서 국제무대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비난에 직면해있는 상태다.

이정후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팀 구성원 모두가 느꼈다. 가진 실력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다. 더 많이 노력하고, 기량을 올려야 한다. 선수 개개인이 모두 성장해야 한국야구도 발전할 수 있다”고 돌아봤다.

일본전 4-13 참패에 대해선 “처음 보는 공들이었고, 그만큼 강력하게 느껴졌다. (일본투수들의) 제구력이 확실히 좋다고 느꼈다.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높게 오는 공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는 국제대회가 있으면 그 때만 대표팀을 소집하지 않나. 일본은 매년 대표팀을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여러 경험을 미리 하면 본 대회에 나갔을 때 느끼는 긴장감도 확실히 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후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김현수(36·LG 트윈스)와 김광현(35·SSG 랜더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선배님들의 맹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대표팀의 영광을 초등학교 때부터 보며 자라왔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정규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비시즌 동안 수정한 타격폼을 실전에서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현재로선 최우선 목표다. 이정후는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하기에는 WBC에서 소화한 타석수 자체가 너무 적었다. 이전 타격폼으로 지난해까지 3000타석을 넘게 쳤다. 30타석 정도로는 정립이 안 된다. 시범경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 앞으로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해 수정된 타격폼을 실전에서 써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키움 이정후는 한국야구가 WBC에서 당한 참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팀 구성원 모두가 느꼈다. 더 많이 노력하고, 기량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매년 대표팀을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상시적인 대표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스포츠동아DB